엔터테인먼트

2월 음반 수출 동향, BTS 컴백

엔터/레저
Analyst 김민영
minyoung.kim02@meritz.co.kr

Meritz Research 2026. 3. 23

2월 음반 수출액 데이터

- 전체: 4,635만달러 (+128.9% YoY, +56.0% MoM)

- 미국: 1,433만달러 (+629.2% YoY, +20.1% MoM)

- 일본: 1,417만달러 (+82.3% YoY, +344.3% MoM)

- 중화권(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)
  : 755만 달러 (-6.9% YoY, -0.9% MoM)

- 동남아시아(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)
  : 30만 달러(-30.5% YoY, -29.5% MoM)

- 유럽 및 영어권(캐나다, 프랑스, 영국, 독일, 호주, 네덜란드)
  : 830만 달러 (+589.3% YoY, +53.0% MoM)

→ 국가 비중: 미국 30.9%, 일본 30.6%, 중국 8.0%

수출 동향 및 BTS 컴백

- 2월 글로벌 음반 수출액은 4,635만 달러(+128.9% YoY, +56.0% MoM)로 역대 최대 월별 수출액을 기록. 1월에 이어 2023, 2024년 앨범 호황기 당시의 연초 수출액을 상회하는 수준. 2, 3분기 대비 컴백 일정이 많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 연속 매우 높은 수치 기록 중. 이는 Mega IP 컴백, 글로벌 팝업스토어 개최 등의 영향으로 추정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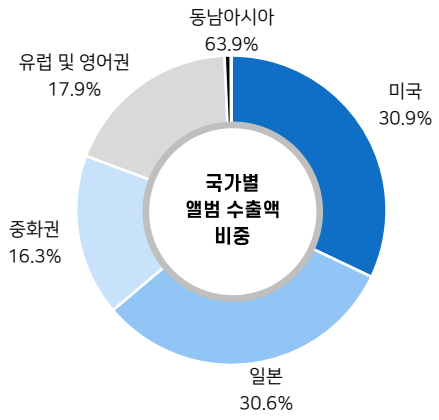
- 특히 미국향 음반 수출액은 1,433만 달러(+629.2% YoY, +20.1% MoM), 유럽 및 영어권은 830만 달러(+589.3% YoY, +53.0% MoM)로, 역대 최대 월별 수출액을 기록. 일본도 마찬가지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액 성장을 견인. 미국, 유럽 등 북미/유럽 지역 음반 수출액 급증함에 따라 지속적인 엔터사 음반 ASP 상승 기대

- 4월부터는 TXT, TWS, 르세라핌, 코르티스, NCT WISH 등 주요 아티스트 컴백이 다수 예정되어 있음. 고연차 활동 재개, 저연차 체급 증가에 따라 음반 수출액 성장 지속될 전망이며, 이에 따라 25년에 이어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 기록할 가능성

- 3/20일 BTS는 앨범 발매 첫날 판매량 398.2만장을 기록하며 역대급 일일 판매량 기록(역대 1일차 음반 판매량 1위 세븐틴(399.8만장, 2023년), 2위 스트레이 키즈(239.3만장, 2023년), 3위 BTS(265.3만장, 2020년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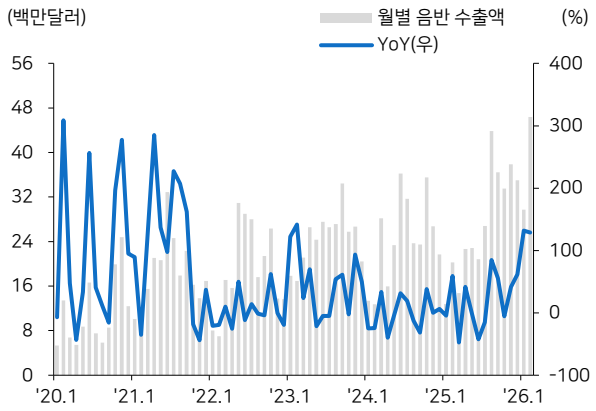
- 3/21일 BTS는 넷플릭스 라이브를 통해 190여개국에서 컴백 라이브를 생중계. 22일 기준 글로벌 및 약 80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 기록. 20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는 타이틀곡 1위, 14곡 1~14위로 차트인

그림1 **2월 기준 음반 수출액 비중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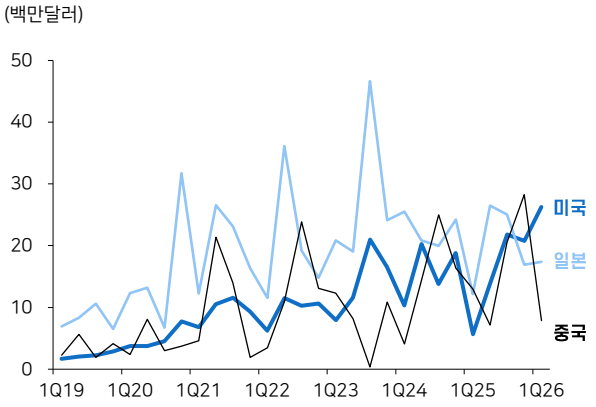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**월별 음반 수출액 추이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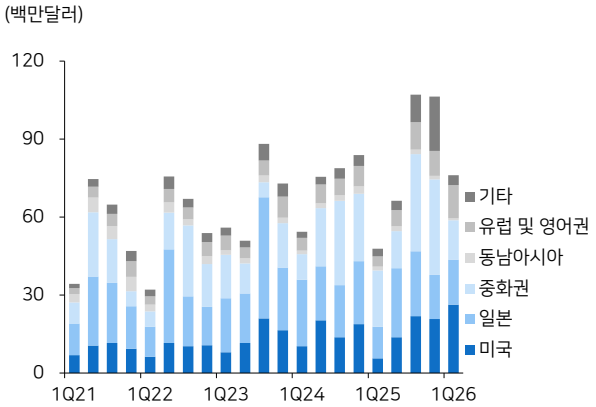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**분기별 미국, 일본, 중국 수출액 추이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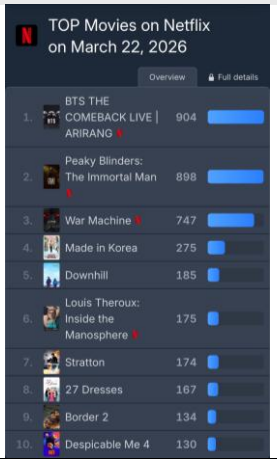
주: 1Q26은 1~2월 누적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**지역별 음반 수출액 추이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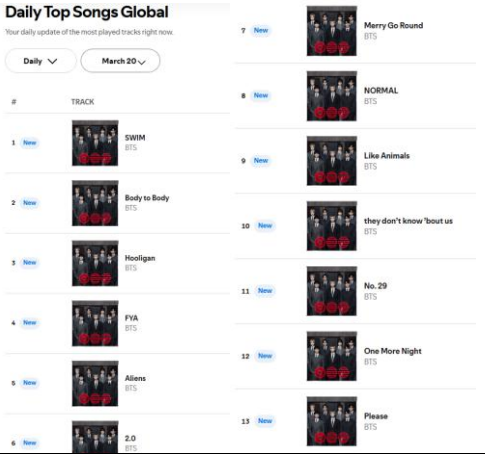
주: 1Q26은 1~2월 누적
자료: 관세청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3월 22일 Netflix Global Top Movies 차트



자료: Netflix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3월 20일 Spotify Daily Top Songs Global 차트



자료: Spotify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